

부산 스포츠 이슈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Vol. **33**
2022. 12

BSC 뉴스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 2기 장인화
현 회장 재선

부산체육인

설원 정복을 넘어 바이애슬론을 알리다
부산광역시바이애슬론연맹 안양욱 회장

영광의 주역

얼음 위에서 보낸 평생
부산광역시빙상경기연맹 이상천 부회장

부산스포츠 히어로

쑥쑥! 부산 육상 꿈나무들이 자라요
토성초등학교 육상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단합은 우리의 힘!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BSC 뉴스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 2기 장인화 현 회장 재선



부산체육人

설원 정복을 넘어 바이애슬론을 알리다

- 부산광역시바이애슬론연맹 안양욱 회장



영광의 주역

얼음 위에서 보낸 평생

- 부산광역시빙상경기연맹 이상천 부회장



부산스포츠 히어로

쑥쑥! 부산 육상 꿈나무들이 자라요

- 토성초등학교 육상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단합은 우리의 힘!

-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당선증교부식

2022. 12. 15 (목)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 2기 장인화 현 회장 재선

65.7% 득표, 장인화 회장 연임 “체육인 화합 속 확장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15일(목) 450여 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장 민선 2기 선거를 진행하였다. 이번 선거는 현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과 홍철우 전 부산광역시 통합배드민턴협회장, 김영철 전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이 경쟁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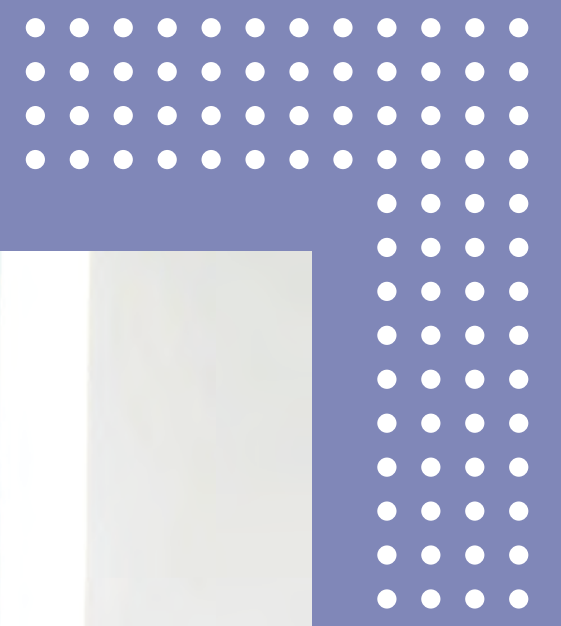


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454명 중 38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장인화 후보가 (251표·65.7%)를 얻어 김영철(120표·31.4%), 홍철우(11표·2.8%) 후보를 제치고 민선 2기 부산광역시체육회장으로 당선되며 연임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지난 3년간 민선 1기를 맡아 부족한 재정을 안정화하는 등 시체육회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온 만큼 체육인의 화합 속에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확장될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부산 체육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부산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체육선수 육성에 힘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장인화 회장은 안정적인 체육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업인답게 지역 상공계와 연계해 59개 종목과 구·군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부산 체육 특성을 살린 해양스포츠 활성화, 동호인 리그 등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전했다.





설원 정복을 넘어 바이애슬론을 알리다

부산광역시바이애슬론연맹

안양욱 회장

설산을 배경 삼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스키와 사격을 동시에 즐긴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2종 경기를 뜻하는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종목으로 북유럽 최고 인기 스포츠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종목이다. 안양욱 회장은 어떻게 바이애슬론을 접하게 된 것일까.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선수로 활동 중인 김마그너스 선수의 가족과 친분이 있어서 제 아내와 딸이 네덜란드를 방문했는데, 그때 가족들이 먼저 바이애슬론을 접하게 되었죠.”

안 회장은 아내와 딸을 통해 바이애슬론 종목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던 안양욱 회장이었기에 색다른 종목을 경험하는 일은 놓칠 수 없었을 터.

“그길로 곧장 온 가족이 강원도 바이애슬론경기장을 방문했죠. 설산을 배경 삼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스키와 사격을 동시에 즐긴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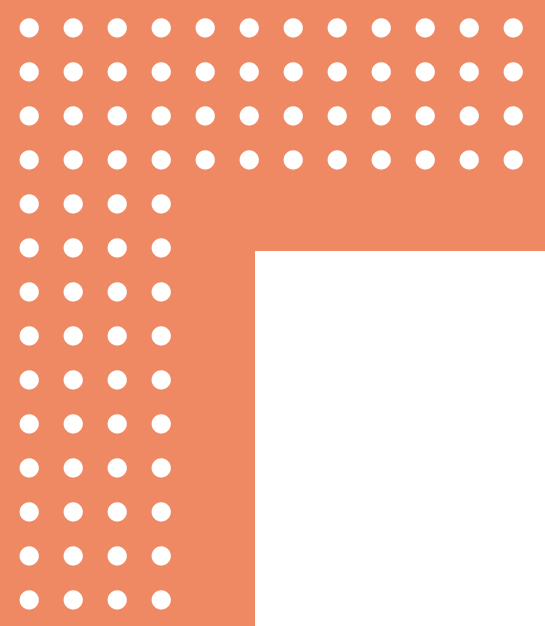
전국동계체육대회는 물론 동계올림픽 정식종목이기도 한 바이애슬론. 하지만 자연환경 특성상 동계스포츠와 거리가 먼 부산에서 바이애슬론은 여전히 낯선 스포츠다.

“기존에는 부산광역시스키협회에서 바이애슬론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더욱 세심한 종목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바이애슬론연맹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초대 회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산광역시바이애슬론연맹을 이끌어오고 있는 안 회장은 연맹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했다.

“저희 연맹은 소규모예요. 선수층도 적죠. 그래서 친밀도를 강조합니다. 성과나 성적을 강조하기보단 바이애슬론을 통해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해주자고 운영 방향을 정했죠.”

내년 1월 6일 강원도 알펜시아바이애슬론센터에서 개최되는 제6회 부산광역시 바이애슬론회장배대회 준비에 한창인 안양욱 회장. 이 대회를 통해 부산에서 바이애슬론 스타플레이어가 탄생하길 기대한다는 그의 바람처럼 부산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에 바이애슬론을 알릴 세계적인 선수가 등장할 날을 함께 고대해 본다.



얼음 위에서 보낸 평생

부산광역시빙상경기연맹

이상천 부회장



스케이트는 잘 타는 사람의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의 훈련 과정을 답습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곤 했습니다.

쇼트트랙 등 우리나라 빙상 스포츠는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위상을 떨치기 전, 스케이트 자체를 구경하기도 어려웠던 시절부터 이상천 원로는 스케이트의 매력에 빠져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 옆에 강이 있었는데 겨울철이면 꽁꽁 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스케이트를 사주셨거든요. 그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상천 원로. 그가 지금까지 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던 건 둘째 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스케이트는 잘 타는 사람의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의 훈련 과정을 답습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곤 했습니다. 저는 형을 따라다니며 스케이트를 배웠는데, 형이 저의 전담 코치나 마찬가지로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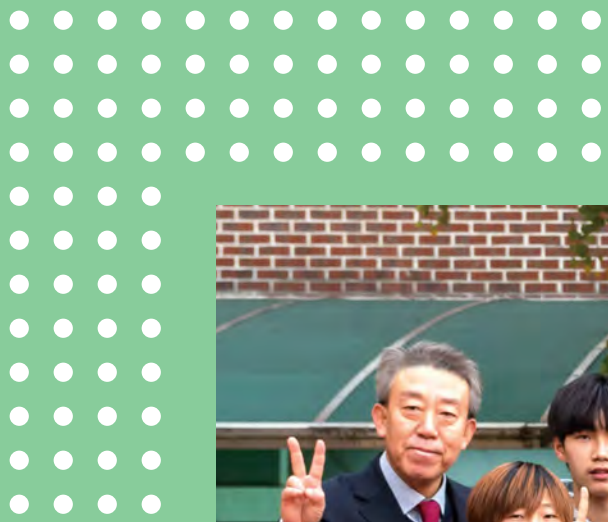
두 사람은 1977년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땀는데, 이때 ‘이상철, 이상천 형제는 용감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상천 원로는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뒤로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일찍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진실되게 가르치자’는 신념으로 지도했는데, 그 진심을 알아본 부모들이 그에게 자식을 맡기기 시작했고, 당시 대구 출신 쇼트트랙 선수는 이상천 형제의 손을 거치지 않은 선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선수, 부모, 코치가 삼위일체가 돼야 훌륭한 선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선수를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도서도 하나 없이 ‘무(無)’에서 출발해 나중에는 스케이트의 기본자세를 정리한 교본까지 만든 이상천 원로. 그가 키워낸 수많은 제자는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도자를 맡는 등 활약하고 있다. 이상천 원로는 현재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빙상장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토성초등학교육상부

쑥쑥! 부산 육상 꿈나무들이 자라요

1960년 창단 이후 60여 년의 시간 동안 꿈나무 선수를 육성해온 토성초등학교 육상부는 그동안 부산 육상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경기대회 육상 여자 100m 허들 금메달을 거머쥔 정혜림 선수 외에도 곳곳에서 토성초등학교 육상부 출신들의 활약을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이건호 선수가 100m, 200m를 동시에 석권하며 초등부 MVP로 선정되는 등 토성초등학교 육상부의 위상을 전국에 과시하였다.

토성초등학교 육상부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제 막 육상을 경험하는 단계이기에 재미와 흥미를 먼저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4학년 때는 달리기 위주로 가르치고, 5학년 때부터 선수 적성에 맞는 종목을 추천해 지도 중이다. 앞으로도 우수 선수 발굴에 중점을 뒀어 어린 선수들이 자라 훗날 전국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부산 육상의 기반을 닦아 주고자 한다.

부산스포츠하이로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합은 우리의 힘!

체육회 임원들과 지도자들의 끈끈한 단합을 중심으로,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열어가는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0월 말 영도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영도구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스포츠를 즐기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중순에는 영도구의 대표 가을 문화축제인 ‘영도다리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2년째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참가자 120여 명이 모터보트와 크루즈 요트를 체험하며 영도 바다의 팔색조 매력을 한껏 즐겼다.

영도구체육회는 작년 코로나19로 실내 체육활동이 힘들어지면서 야외 프로그램인 ‘걸어보자 봉래산 둘레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내년에는 환경 보호라는 취지를 더한 플로깅 행사를 개최하여 환경과 건강을 챙기는 일에 영도구민과 함께 앞장서고자 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